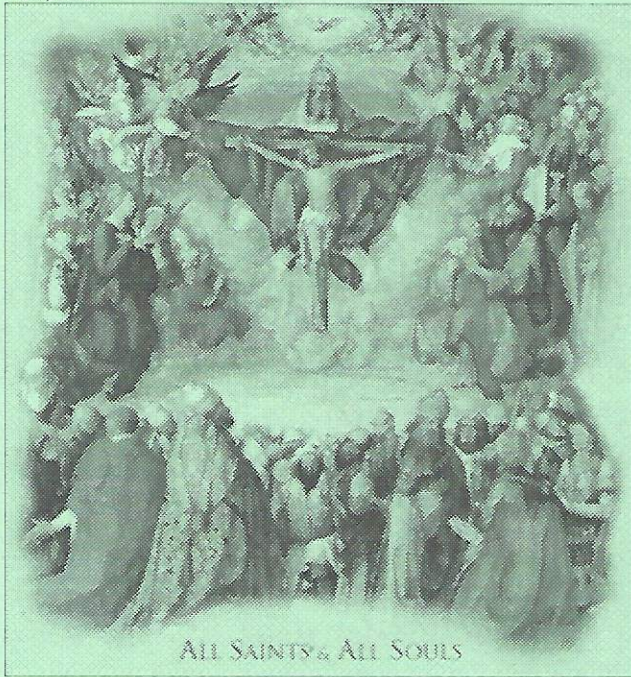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모든 성인 대 축일
제35권 49호(나해) 2015년 11월1일

[묵상]



이웃의 가난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

슬픔에 잠긴 이웃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

박해 받는 이들을 이해하며
함께 고통을 겪을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라면,
곧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하느님 사랑과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기쁘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애자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들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 이용식 베드로
	(생) 정영숙 테레사
주일 낮 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진은란 아네스, 이사범 로벨토 & 윤주경, 박순용 요안나, 고준희 제임스, 김영식 & 김영자, 김진성 루스 & 김수정 발바라 최병덕 바오로, 이강희 윤일 요한 + 박덕기 카타리나, 박문규 프란체스코 + 최옥선 클라라, 김판봉 안나,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이종수 마틴, 돌아가신 레지오 단원들, 전시웅 요한
	(생) 민석준 토마스 + 미에 + 민영준 마르코, 서성용 베드로, 정영숙 테레사, 석순영 아네스, 이재숙 테레사, 김레이첼, 김임식 마누엘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한국 교회의 역사

1. 교회의 창설 과정

1-1. 교회 창설의 배경

한국 천주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사실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였는데, 이 준비 기간에 비축한 힘은 당시 사회의 요청에 힘입어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된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 교회를 창설한 사건은 기적이라기보다는, 18세기 후반 한국 사회의 요청이었으니, 이 점을 알려면 교회 창설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대내적 요소와 대외적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배경으로는 조선의 대내적 요소를 주목할 수 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문화와 사상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의 남송에서 발생하여 조선 왕조에서 완성시킨 개신유학(改新儒學)인 성리학(性理學)에 대한 비판이 움터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실학 사상이 대두되었다. 실학 사상은 유교 경전을 해석함에 주희(朱熹)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데 반대하고, 공자나 맹자 단계의 원초 유학(原初儒學)으로 돌아가려는 학문 경향을 말한다. 당시 실학자들은 성리학에 회의를 품고 이에 대체될 수 있는 새로운 사상 체계를 모색하고 있었다. 실학자들은 중국의 유교 철학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원초 유학에는 천(天), 또는 상제(上帝)에 대한 관념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실학 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에 대한 비판의 분위기와 그들이 원초 유학으로써 이해했던 상제 등에 대한 관념은 유일신 사상인 천주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이와 같은 문화적 변동 과정에서 새로운 사상에 대한 지적 요청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중국에서 간행된 각종 책자를 구입하여 중국의 사상을 검토하였다. 그들이 검토한 서적 가운데에는 각종 천주교 서적이 있었다. 이 한문 서학서(漢文西學書)들도 원초 유학에 입각하여 보유역불론(補儒易佛論)을 전개하였다. 여기에서 남인계 지식인들은 당시의 서학서에서 원초 유학이라는 공통 요소를 발견했고 상대적으로 쉽게 서학서에 접근할 수 있었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17	346	345
봉헌	352	269	268
성체	382	291	289
파견	431	176	176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묵시록(Revelation) 7,2-4.9-14

화답송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제 2독서 1요한(John) 3,1-3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복음 마태오(Matthew) 5,1-12ㄴ

영성제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마태5, 12)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들을 예수님께서서는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언뜻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슬프고, 주리고 목마르며 박해 받고 모욕을 당하면서 행복할 리가 있을까요?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온유하며 평화를 좋아하면 이 험난한 세상살이에서 남한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조건 같습니다.

오늘 복음의 행복 선언은 ‘하느님의 나라’를 전제로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세상에 비추어 본다면 오히려 찰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느님과 의 복락을 위해서라면 잠시의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원을 투자해서 100억을 벌 수 있다면, 그까짓 100원을 아까워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 보면 우리 눈에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서는 행복하다고 하신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복하다고 선언하신 이들은 사실 ‘온전히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기에 이들은 세상살이의 수고와 고통, 온갖 슬픔까지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기꺼이 사는 이들을 주님은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교회는 ‘모든 성인 대 축일’을 지냅니다. 성인(聖人)들은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런 삶을 살다 가신 분들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기에 욕심 없이 그분의 뜻을 좇으며 세상살이의 온갖 수고를 감내하신 분들이 바로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행복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어야만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의 ‘모든 성인 대 축일’이 말해줍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어도 하느님 안에서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삶을 완성하신 분들이, 오늘 요한 묵시록의 표현대로,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묵시 7,9) 많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도 그 대열에 들 수 있도록 ‘참 행복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하고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길이 반드시 미래의 행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의 기쁨을 이미 지금부터 맛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3절)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10절)에게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현재 시제로 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벌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지요. 이 기쁨을 죽은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벌써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기쁨을 매일의 신앙생활에서 얻어 누리며 살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합시다. 아멘.

◆ 유경춘 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박희자 마리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김교복 레오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금자 데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데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1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11월
위령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관련하여 11월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모든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 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남가주 한인가톨릭 합동위령미사

- 일시 : 11월14일(토)
연도 오후 1시15분, 미사 오후 2시
- 장소 : Holy Cross Cemetery

◆안나회 효도관광(레이크 엘시노어 온천장)

- 일시 : 11월9일(월요일)
- 대상 : 55세 이상(전신자, 남,녀불문), 45명 예정, 선착순
- 회비 : \$30(1인), \$40(부부 또는 가족2인)
- 출발 : 오전 7시 30분, 오후 6시 도착 예정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묵주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 (310)781-0021

◆ 주일학교 첫 영성체 반 학부모 간담회

첫 영성체 받는 아이들과 부모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것들에 관해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기 원하오니, 첫 영성체를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께서 필히 간담회에 참석하여주시어, 아이들이 첫 영성체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11월 8일(주일) 9시30분 학생 미사 후
- 대상: 첫 영성체 반 학생들 학부모님
- 장소: 2학년 교실

◆F.I.G.S. Jr. 중등부 락인

F.I.G.S. Jr. 중등부에서 락인을 합니다. 재미있고 알찬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사오니, 부모님들께서는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 동의서는 학생들 편에 보냅니다.

- 일시: 11월13일 (금)7:00pm - 14일(토) 10:00am
- 대상: 주일학교에 등록되어있는 중등부 학생들
- 체크 인: 저녁 7시
- 장소: 103위 한인성당
- 준비물: 침낭, 세면도구, 여벌 옷, 자켓
- 신청 마감일: 11월 8일 주일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1일 * 소공동체 : 김밥 (\$4),
* 주일학교 : 비빔밥 (8학년)
- 11월 8일 * 토복1,2반 : 홍합 미역국 (\$3),
* 주일학교 : 빵 과 스프 (4,7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김성현 김원호 김일선 김정선 김형순 박완철 박운모 변정선 유보나 유현옥 유희연 육근주 윤화경 이은경 이재철 이태옥 이현주 이형삼 임한나 장영진 정남형 정혜영 최길주 최태훈 홍석인 송미카엘 합계:\$2,445	성전헌금	강태홍 김원호 변정선 유희연 윤화경 이현주 이형삼 임한나 장영진 정남형 정혜영 최길주 최태훈 송미카엘 합계 : \$945
주일미사 헌금 :\$2,249			

한소끔 들끓은 후에

국을 끓일 때 센 불로 끓이다가
한소끔 끓고 난후 불을 줄여 끓이는데,
그러고 나면 재료의 불순물도 걸러지고 잡내도 잡아서
엄마의 엄마의 엄마 때부터 그대왔던 것 같습니다.
사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생의 마다마다 한소끔 끓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몹시 부대끼긴 하지만
지난 후엔 미안함도 알고 고마움도 알게 되더군요.



“세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하시다. ☺

남가주 소식

◆성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안내

- 일시 : 11월15일 (주일) 낮 1시~5시
11월16일(월) 저녁 6시~10시
양일중 하루를 택하여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 교육방법 : 첫날 3시간 강의 후 1시간실습
이후 1달 이내 10회 실습
- 장소 : 성 아그네스 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 CA 90007
- 문의 : 사무실 ☎(323)731-4433

◆LA 골롬바의 집에서 인보 성체수도회 수도자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지내실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장소 : 248 S. Mariposa Av. L.A. 90004
- 담당:공 데레사 수녀
☎213-389-7760 / 213-785-1147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안내(9개월간)

- 일시 : 2015년 9월 ~2016년 6월
- 주관처 : Loyola Institute for Sprituality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480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213)507-1144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차 장 박영희 아가다 422-1119
차 장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구역/장	번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배태임 안나 991-4838 11/10(화) 오후 6시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김정웅 요한 11/21(토) 오후 6시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11/20(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김대우 비오 378-8763 11/10(토)오후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손석 스테파노 11/14(토) 6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윤선희 로사 11/14(토) 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최옥희 데레사 11/20(금) 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11/17(화) 11시, 성당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송 미카엘라 850-2822 11/14(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정병옥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최기호 스테파노 11/9(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윤진 카타리나 749-3151 11/7(토) 7시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11/13(금)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11/13(금)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김명숙 루실라 11/7(토) 11시 강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11/10(화)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오후1시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오후1시

124위 시복특집<35> 권천례 데레사 (1784~1819년)

권(權) 데레사는 한국 천주교회 창설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딸이요, 1801년의 신유박해 순교자 권상문(세바스티아노)의 동생이다. 1784년 경기도 양근에서 태어난 데레사는 6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1791년의 신해박해로 아버지까지 잃어야만 하였다.

데레사는 어렸을 때부터 덕행과 신심이 남달랐다. 또 성장한 뒤로는 온화함과 애덕으로 형제간에 평온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나이 17세 때 일어난 신유박해로 온 집안이 풍파를 입게 되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게 된 데레사는 조카 하나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 생활하면서 동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친척들이 그녀를 찾아와 ‘조선에서 동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결국 그녀는 계속되는 친척들의 설득을 받아들여 동정을 포기하기로 작정하였으며, 20세 때 조숙(베드로)과 혼인을 하였다. 당시 베드로는 냉담자였다.

혼인하는 날 밤 권 데레사는 ‘동정 부부로 살자고 부탁하는 글’을 써서 남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마음이 변하여 아내의 원의를 들어주었고, 잠깐 사이에 신앙심이 되살아나서 판 사람이 되었다.

이후 데레사 부부는 남매처럼 지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면서 생활하였다. 그들의 신심은 날로 깊어졌고, 기도와 복음 전파와 고신극기 행위는 그들 부부의 일상이 되었다. 비록 그들은 가난하였지만 남을 위한 애공에 열심이었다. 이렇게 15년을 지내는 동안, 데레사는 남편이 지난날의 약속을 깨트리려고 할 때마다 착한 말로 권유하여 남편의 마음을 돌려놓곤 하였다.

언제부터인가 데레사 부부는 성 정하상(바오로)을 도와 일하게 되었다. 그가 성직자를 영입하기 위해 북경을 왕래할 때마다 그들 부부는 모든 뒷바라지를 하였다. 한편 이 무렵에는 고 바르바라(혹은 막달레나)라는 과부가 함께 살면서 그들 부부를 도와주었다.

그러던 중 정 바오로가 다시 한 번 북경에 갔을 때, 포졸들이 우연히 조숙 베드로를 수색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내 베드로가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그와 함께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러자 데레사는 즉시 천주교 신자라는 것

을 자백하였고, 고 바르바라와 함께 남편을 따라 옥으로 끌려갔다. 이때가 1817년 3월 말경이었다.

문초가 시작되자, 관장은 데레사 부부에게 ‘배교하고 동료들을 밀고하라’고 추궁하거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였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어느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으며, 꾀꾀하게 혹독한 참아냈다. 데레사는 관장이 배교를 권유하자 이렇게 답하였다.

“천주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 모두 부모를 배반하는 경우에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관장은 다시 몇 차례에 걸쳐 문초와 형벌을 가하였지만, 데레사 부부의 신앙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다. 이후 고통스러운 옥살이 중에도 데레사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또 남편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하느님께서 내려주실 순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자.”고 권면하였다.

데레사 부부와 고 바르바라는 2년 이상을 옥에 갇혀 있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굳건하였으며,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칠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들 셋이 함께 참수형을 받고 순교한 것은 1819년 8월 10일(음력 6월 20일) 이후로, 당시 데레사의 나이는 36세였다.

교우들은 그들이 순교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시신을 거둘 수 있었다. 이때 교우들은 데레사의 머리뼈를 바구니에 담아 성 남이관(세바스티아노)의 집에 두었는데, ‘바구니를 열면 향기가 진동하였다’고 여러 교우들이 증언하였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엮음

[기도묵상]

완전한 자기 포기란, 그분이 주시는 것과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을 웃는 얼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명성이든 건강이든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꺼이

그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자기 포기며, 자기 포기를 할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 마더 데레사 -

믿음으로다시 일어난 중풍환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삼시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이파 사람들, 말씀 듣기 위해 온 사람들, 호기심으로 몰려온 사람들까지 뒤엎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집 한가운데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 나라에 관해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중풍으로 누워있던 환자 한 사람이 친구 네명의 도움으로 문 앞에 도착합니다. 중풍 병자와 친구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코 2,1-4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집은 흙 집 담에 부착된 옥외계단이 있어서 쉽게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고, 지붕은 대부분 나뭇가지 등으로 덮여 있어서 뜯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렵게 다가온 중풍 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코 2,5-6

그러자 율법 학자 몇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는 일반적으로 병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죄를 용서 한다는 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의 생각을 꿰뚫어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코 2,7-12

중풍 병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도우미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중풍 병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육신이나 마음과 정신이 마비되어 무언가에 뭇뚱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어떤 장애물 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의 ()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 병자가 누워 있는 ()을 달아 내려 보냈다.

(마르코2,4)

“이제 ()이 땅에서 죄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것을 () 집으로 돌아가거라.”

(마르코2,10-11)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점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써니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예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활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미리암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쟈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웁(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